

# 허사 'there' 구조와 3차원병합

김학연

(대구가톨릭대학교)

**Kim, Hakyeon. 2011. Expletive 'there' constructions and 3D Merg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151-167.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mechanism of Merge for 'there' constructions. Adopting the idea of [topic] feature of 'there' in Basilico (1997) and 3D Merge in Boeckx (2008), we ascertain that the expletive 'there' with [topic] feature from  $\omega$ -domain merge with TP from  $\alpha$ -domain. We believe that this sort of Merge not only solves the problem of redundancy and locality caused by various movement analyses still keeping the spirit of MOM but shows the concordance between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re' constructions and their information structure.

**Key Words:** expletive there constructions, 3D Merge, locality, topic, labeling

## 1. 머리말

병합과 이동을 이용한 최소주의의 기제로 허사 'there' 구조를 설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배번집합에 'there'을 포함시켜 병합 후 이동시키는 여러 시도들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 뒤 Basilico (1997)에서 제안된 'there'의 화제성을 받아들여 Miyagawa (2007, 2010)의 화제/초점구조를 수정한 구조를 제시하며, Boeckx (2008)에서 제시된 3차원병합 (3D Merge)으로 허사 'there'의 병합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Chomsky (1995)에 제안된 병합선호원리 (Merge over Move)와 그 이론적, 경험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표제달기 (Labeling)과 관련한 'there'의 이동분석들을 살펴본 뒤 3장에서는 'there'의 화제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아보고 3차원으로 병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 1.1 병합선호원리 (Merge over Move)

Chomsky (1995, 2000)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주의이론의 병합과 이

동기제는 일부 통사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론내적 문제와 경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허사 ‘there’구조의 설명에 잘 나타난다.

- (1) a. There seems to be a man here.  
 b. \*There seems a man to be here.

우선 “확대투사원리(EPP)에 근거를 두고 허사 ‘there’에는 격자질이 없다”라는 주장<sup>1)</sup>을 따르면 (1b)의 비문법성을 도출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어휘항목의 초기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이미 선택한 *there*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선택한 어휘 (*a man*)을 이동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결과 (여기서는 (1a))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이론내적인 문제와 경험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이론내적인 문제점으로는 병합, 즉 선택된 어휘를 배번집합 (Numeration)에서 가져오는 운용 (operation)과 이동, 즉 이미 병합된 어휘를 복사하여 (copy) 다른 곳에 가져가는 운용은 엄밀히 말해 성격이 다른 별개의 작용이므로 두 개의 성격이 다른 운용의 비용을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Chomsky (2001, 2004)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동이 일치 (Agree)+복사 (Copy)+병합으로 이루어지는 내부병합 (Internal Merge)이라면 이 문제는 약간 완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배번집합으로부터의 복사 후 병합작용이 같은 배번집합에서 새로운 어휘를 선택하는 것보다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병합선호원리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Chomsky (2001)의 명제 (phase)개념을 도입한 병합이론은 또 다른 개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Brody (2002)는 최근의 최소주의 통사론이 도출적 (derivational) 접근과 표상적 (representational) 접근의 혼합적 (mixed) 이론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Chomsky (1995, 2000, 2001, 2004) 등에 제안된 여러 가지 가설 중 이동 혹은 내부병합은 최초병합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이를 명제 (phase)라 부른다)에서 어떤 통사체가 자질점검 혹은 일치작용 (Agree)에 의해 이동 혹은 다른 위치에 재병합 (Remerge)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동은 기 도출된 표상에서 또 다른 표상구조를 만들어가는 도출이므로 도출-표상이 반복되는 혼합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출작용인 이동과 표상에 나타나는 연쇄가 생겨나는데 이동과 연쇄는 같은 결과의 다른 이름 일뿐이므로 이 가설은 잉여적 (redundant)이라는 것이다<sup>2)</sup>. 즉, (1)에서 내포문의 표상을 위한 도출과 모문의 표상을 위한 도출이 각각

1) Chomsky (1995)의 병합선호원리 (Merge-over-Move, MOM)에 따르면 내포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확대투사원리를 충족하기위해 [Spec, IP]에 통사체를 삽입해야하는데 이때 *a man*을 이동하는 것보다 배번집합에 있는 *there*를 병합하는 것이 더 경제적 (simpler operation)이라는 것이다.

2) Brody (2002: 351)는 도출에 의존하는 통사이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i) 도출작용이 불투명체 (opaque objects)를 생성하여 그 내부 요소와 구성에 더 이상의 작용이 접근할

이루어져야 하고 각 국면별 도출-표상, 도출-표상에 따른 어휘삽입이 각 각 다르게 이루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병합선호(MOM)라는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소주의 통사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론적 문제점은 배변집합의 문제이다. 배변집합은 어휘부 (Lexicon)에서 어휘항목 (Lexical Item, LI)의 자질들을 선택하여 어휘열 (Lexical Array, LA)을 만드는 과정을 이르는데 일단 배변집합이 끝나면 다시는 어휘부로 돌아 갈 수는 없다<sup>3)</sup>. 이를 (1)에 적용해 보자. 우선 도출의 몇 단계를 거쳐 *there*가 병합되기 직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2) a. seems to be a man here
- b. A man seems to be here.

(2a)에서 (1a)를 도출하기 위해 구조에서 MOM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there*가 배변 집합 안에 들어있어 반드시 병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there*가 배변집합에 들어있지 않으면 (2b)와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sup>4)</sup>. 이와 같이 배변집합의 배타성 즉 포함조건 (Inclusiveness Condition)<sup>5)</sup>은 도출-표상, 도출-표상이라는 상이한 작용의 반복적용과 MOM이라는 제약적 원리를 도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병합과 이동의 기제로 (1)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경험적 문제도 있다. 우선 Castillo, Drury와 Grohmann (1999:4)는 MOM에 근거한 설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허사 삽입이 가능한데도 *a man*을 [Spec,IP]로 이동시켜도 괜찮은 다음 구문을 보자.

수 없을 때 이러한 도출은 비표상적 (nonrepresentational)이다. (ii) 도출의 각 단계들 즉 표상들이 투명하여 (transparent) 그 구조에 다른 원리들이 작용할 수 있으면 이러한 도출은 약표상적 (weakly representational) 이다. (iii) 도출작용이 약표상적이고 그 표상에 여러 가지 제약을 부과하면 그 도출 이론은 강표상적 (strongly representational) 이다. 그러므로 도출이론은 적어도 약표상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x와 y가 병합한 z에서 z가 투명해야만 다음 작용이 y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이 (재)병합, 혹은 내부병합이든 아니면 그 결과의 표상에서 연쇄로 나타나든 z가 불투명하면 이런 모든 작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도출이론은 접합점에 여러 개의 표상을 가지는 (약)표상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3) Chomsky (2000: 99)는 언어처리과정을 자동차에 비유하여 배변집합 후 어휘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치 자동차가 거대한 정유시설을 가지고 이동하는 “복잡성 (complexity)”을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디자인 (poor design)”이 된다고 주장한다.
- 4) (1a)와 (2b)는 의미가 다르다. (2a)의 a man은 구체성 (specific)과 비구체성(non-specific)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애매성 (ambiguity)이 있으나 (1a)의 a man은 비구체성의 해석만 가능하다. Heim (1982), Diesing (1992), Reinhart (2000), Sabel (2000) 등 참고.
- 5) 포함조건 (Chomsky 1995: 228)  
 운용 (computation)에 의해 형성되는 모든 구조는 배변집합에 선택되어 존재하는 요소로 이루진다. 운용 과정에는 이미 구성된 요소의 재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새로운 통사체가 들어올 수 없다.

(3) There was a rumor that a man<sub>i</sub> was t<sub>i</sub> in the room in the air.

이런 구문을 다루기 위해 Chomsky (2000)는 각 명제 (phase)가 하위배번집합 (subnumeration)을 가진다고 제안하면서 허사가 내포절에 상응하는 하위배번집합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사 삽입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분석에도 다음과 같은 반례가 있다.

- (4) a. There has been a book<sub>i</sub> put t<sub>i</sub> on the table.  
 b. \*There has been put a book on the table.

Chomsky(2000)는 수동 VP(passive VP)를 명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 구조는 한 개의 명제만을 가진다. (4)에서 *a book*이 이동하는 시점에 허사의 삽입이 가능하므로, MOM에 따르면 허사삽입이 *a book*의 이동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4a)에서 보듯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sup>6)</sup>.

## 2. 표제달기 (Labeling)와 이동가설

위에서 살펴본 MOM을 적용하여 *there*를 병합하는 제안은 표제달기 및 병합의 위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Chomsky (2005)에 표제달기를 다음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6)의 *there*구문에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 (5) a. In {H,  $\alpha$ }, H a lexical item (LI), H is the label.  
 b. If  $\alpha$  is internally merged to  $\beta$  forming { $\alpha, \beta$ }, then the label of  $\beta$  is the label of { $\alpha, \beta$ }.

---

6) Castillo, Drury와 Grohmann (1999)는 또, MOM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예를 제시하고 있다.

- (i) a. \*John<sub>i</sub> seems that it was t<sub>i</sub> in the room.  
 b. It seems that John<sub>i</sub> was t<sub>i</sub> in the room.

위 예문에서 *it*의 병합이 *John*의 이동보다 선행해야하지만 그 결과인 (ia)는 오히려 비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T-영역”이라는 것은 제안하는데 T를 [+finite, +tense]로 보고 수렴 (convergence)이 T-영역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ia)가 비문인 것은 내포문의 T영역에서 *John*의 격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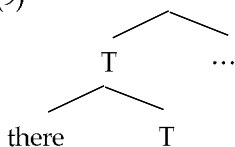
(8) a.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b. [  $\bar{I}$  [VP V(is) [DP there(D) [SC a picture on the wall]]]]  
 $u\phi$   $u[\text{person}]$   $\phi$   
 $u[\text{Case}]$   $u[\text{Case}]$  (Basilico 1997)

c. [  $\bar{I}$  [VP V (is) [DP there(D) [NP a picture]] on the wall]]  
 $u\phi$   $u[\text{person}]$   $\phi$   
 $u[\text{Case}]$   $u[\text{Case}]$  (Sabel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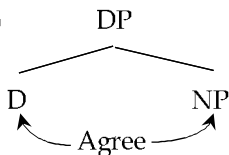
이들의 주장은 *there*가 구문전체의 표제달기에 관여하는 문제를 피하고는 있으나 두 가지의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 *there*가 핵이동하여 아래 (9)와 같이 T와 융합(conflate)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9)



둘째, *there*가 DP의 핵이라면 핵이 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Cecchetto and Donati (2007)에 의하면 아래 (10)-(13)에서 보는 것처럼 D와 N사이에 일치가 일어나면 D핵은 DP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10)



(11) a. \*I wonder *what* you read *book*.

b. \*I read *what* you read *book*.

(12) \**Welche* hat Johann *Bucher* gelesen? (German)

which-PL has Johann books read

'Which books has Johann 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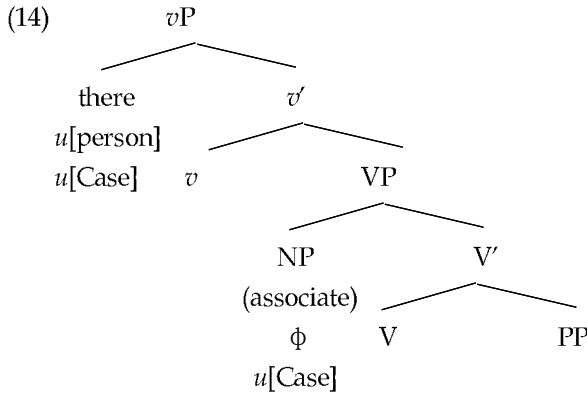
(13) \**Quanti* hai letto *libri*? (Italian)

how-MASC-PL have.2SL read books

'How many books have you read?'

뿐만 아니라 핵인 D가 어떻게 격자질을 가지며 격을 점검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Radford (2004), Kim and Lee (2004, 2008)에서 제안된 허사 *there*가 약 *vP* 내에서 병합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우선 이 연구들에서는 Chomsky (2001)의 구분을 따라 *vP*를 동사에 따라 강*vP*와 약*vP*로 나누고 비대격동사 (unaccusative verb)가 약 *vP*를 투사한다고 본다. 허사 *there*는 이러한 약*vP*에 아래와 같이 병합된다<sup>8</sup>.



허사 *there*가 *u[Case]*뿐만 아니라 *u[person]*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T의 EPP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 허사 *there*가 [Spec, *v*]에 병합되므로 제휴어의  $\phi$ 자질과 일치관계를 이루고 이 자질에 의해 값이 매겨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질값 매기기에 의해 *there*와 제휴어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Basilico (1997), Sabel (2000), Radford (2004), Kim and Lee (2004, 2008) 등의 제안들은 모두 허사 *there*가 TP아래에서 병합되어 [Spec, T]로 이동한다는 주장인데 앞에서 밝혔듯이 Brody (2002)는 이러한 병합 후 이동제안이 각 명제별로 어떤 통사체가 자질점검 혹은 일치작용 (Agree)에 의해 이동 혹은 다른 위치에 재병합 (Remerge)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동은 기 도출된 표상에서 또 다른 표상구조를 만들어가는 도출이므로 도출-표상이 반복되는 혼합이론이라는 것이다. 즉 도출작용인 이동과 표상에 나타나는 연쇄가 생겨나는데 이동과 연쇄는 같은 결과의 다른 이름 일뿐이므로 이 가설은 잉여

8) Radford (2004)에 의하면 약*vP*의 비대격동사는 사건역 (eventive)이라는 의미역 격자를 가지고 있고 *there*이 병합하면서 이 의미역이 포화된다. Collins (2002), Pesetsky and Torrego (2006), Cecchetto and Donati (2007) 등에 의하면 외부병합은 탐색-목표관계에 의해 이루지는데 의미역관계도 병합에 필요한 탐색-목표 관계처럼 이루어진다. 따라서 허사 *there*도 weak *vP*의 지정어위치에 병합되면서 의미역이 포화된다고 본다.

적 (redundant)이라는 것이다.

### 3. 화제 (Topic)로서의 ‘there’

Basilico (1997)는 허사 ‘there’가 D핵으로 소절을 보충어로 취하며 허사 ‘there’가 VP 내에 병합되어 [Spec,T]로 이동한다고 본다. 이때 ‘there’는 [+specific]의 특징을 가지고 화제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there’가 화제양화사로서 소절 (small clause)의 술어핵에 의해 생기는 ‘사건’의 범위를 결속한다고 보고 there가 D핵으로 소절과 최초 병합되어 [Spec,TP]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sup>9)</sup>.

그의 주장은 이동가설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만약 ‘there’가 [+specific]의 특징을 가진 화제로 병합된다는 주장만 받아들인다면 이동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운용없이 ‘there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그 중 하나가 Boeckx (2008)에서 제안된 3차원 병합이다.

어휘핵과 기능핵의 투사는 많은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Chomsky (1986) 이후 X-bar를 확장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그 중 Rizzi (1997)의 CP 영역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그는 CP가 다음과 같은 풍부한 기능의 투사라고 주장한다<sup>10)</sup>.

$$(15) CP = [ForceP [TopicP [FocusP [FinitenessP]]]]$$

화제-초점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탈리아어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 (16) Un libro di poesie, A GIANNI, lo regalerete  
 A book of poems, to Gianni, it you.will.give  
 ‘You will give a book of poems to Gianni’

9) 그가 제안하고 있는 ‘there’ 구조는 다음과 같다. (Basilico 1997: 280)

(i) [<sub>TP</sub> there<sub>i</sub> [<sub>T'</sub> are<sub>i</sub> [<sub>VP</sub> t<sub>i</sub> [<sub>DP</sub> [<sub>D'</sub> t<sub>i</sub> [<sub>SC</sub> comets visible ]]]]]]

10) Galician어에는 보문소가 중복된 구조가 발견되기도 한다.

(i) dixeron que a este home que non o maltratemos  
 said.3.pl that to this man that not him badly.treat.1pl  
 ‘they said that this man that we should not treat him badly’  
 (Raposo and Uriagereka 2005: 646, cited in Boeckx 2008: 130)



Rizzi (1997: 288)는 특히 ForceP와 FinitenessP가 형성하는 CP영역을 좌변 (left periphery)영역이라고 부르고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제구와 초점구는 화제화된 요소나 초점화된 요소가 있을 때만 투사되므로 (17)의 예문처럼 보문소가 이끄는 내포문이 화제나 초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15)는 다음 (18)처럼 나타내야 할 것이다.

- (17) John knows [that Mary left]  
 (18) [ForceP [(TopicP-FocusP) [FinitenessP]]]

또 화제구/초점구는 다음 (19)처럼 중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현수화제 (Hanging topic)는 (20)처럼 ForceP위에 나타나기도 하며 (21)에서처럼 국어의 경우 FinP 아래에 화제/초점이 오기도 한다.

- (19) A Gianni, domain, QUESTO gli        dovremmo dire!  
 To Gianni, tomorrow, this to-him we.should tell  
 'We should tell this tomorrow to Gianni'  
 (Beninca and Poletto 2004: 55, cited in Boeckx 2008: 130)
- (20) (sono certa) questo libro, che non ne  
 am certain this book that not (of it)  
 abbia mai parlato nessuno  
 has ever spoken nobody  
 'I am certain that nobody has ever spoken about this book'  
 (Beninca and Poletto 2004: 65, cited in Boeckx 2008: 131)
- (21) Na-nun Cheolsu-ka ku computer-lo-nun  
 I-Top C-NOM that computer-with-Foc  
 chakuphachi-an-att-ta-ko saengkakhan-ta  
 work-Neg-Past-Dec-Com think-Dec  
 'I think Cheolsu didn't work on that computer  
 (... but on other computer)'

이런 현상을 살펴 볼 때 Boeckx (2008: 132)에서도 제시되었듯이 (1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22) [(Top/Foc) [ForceP [(Top/FocP) [FinP [(Top/Fo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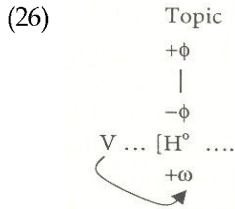


타나는 것을 다른 종류의  $\phi$ -자질로 해결하려는 시도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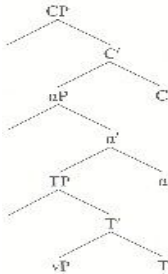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3차원의 병합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히브리어 예에서 화제가 동사와 wh-구 사이에 게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oeckx 2008: 65).

- (25) Sa'alta oti et ha sefer le mi le haxzir  
 asked.2sg me ACC the book to whom to return  
 'You asked me to whom to return the book'

(25)에서 동사와 wh-구 사이의 화제는  $\omega$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phi$ -관계이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동사가 wh-구를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국부성 조건 (locality condition)<sup>12)</sup>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 화제-초점을  $\phi$ -자질에 의한 일치로 해결하기 위해 Miyagawa (2010: 70)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제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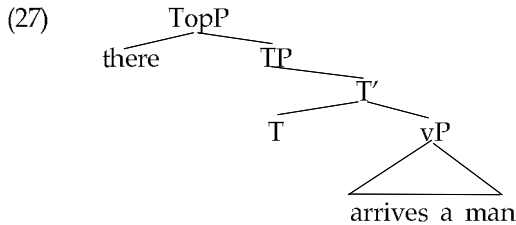
Miyagawa는 화제/초점구인 aP의 병합시 발생하는 국부성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C핵의 화제/초점자질을 T가 물려받는다 (feature inheritance)라고 주장한다.

12) 국부성조건은 Rizzi (1990)의 상대적 최소성조건 (Relativized Minimality) 이후 일치/이동에 작용하는 간섭제약 (Intervention Constraint, Chomsky 2001) 등으로도 나타나나 여기서는 동사의 선택제약에서 자매관계 (sisterhood)나 직접관할 (immediate dominance)와 같은 구조적 인접성 (structural adjacency)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 본 3차원병합을 ‘there구조’에 적용해 보자. Chomsky (1995)는 병합선호원리 (Merge-over-Move)에 따라 내포절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확대투사원리를 충족하기위해 [Spec, IP/TP]에 ‘there’를 병합하는 것이 더 경제적 (simpler operation)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제안의 문제점은 확대투사원리를 설정해야한다는 점, 허사가 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일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휴어에 격을 부과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3)과 같은 지나친 일반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또 확대투사원리를 피하기 위해 허사 ‘there’가 TP내부에서 병합하여 이동한다는 여러 주장들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동에 따르는 몇 가지 경험적, 이론내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asilico (1997)에 제안된 ‘there’의 ‘화제성’을 인정하고 Rizzi (1997)와 Miyagawa의 주장처럼 화제/초점구를 위한 기능투사를 설정하며 그리고 Boeckx (2008)에서 제안된 3차원병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허사 ‘there’는 화제의 자질을 가진 TopP의 지정어로 TP와 병합한다. Rizzi (1997)의 (22), (26)과 같은 좌변구조에서 화제/초점구가 한정구 (FinitenessP)와 CP/ForceP 사이에 올 수 있고 Miyagawa (2007, 2010)에서 제안된 각주 (i)의 구조처럼 화제/초점구는 TP와 CP 사이에 병합될 수 있다<sup>13</sup>).



(27)에서 *there*가 [Spec,TP]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증거는 동사와의 일치가 제휴어명사구와 이루어지지 허사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8) There arrives/\*arrive a man

여기에 대한 증거를 다른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이태리어 예에서처럼 비대격동사의 주어는 vP 내에서는 초점, 문두의 주어자리는 화제이다.

13) 전통적인 탐침-목표 일치가설을 따르면 *there*가 가진 [화제성]이라는 비해석성자질은 T가 C로부터 물려 받은 해석성자질에 의해 점검된다. 이는 Pesetsky & Torrego (2001)에 제안된 C와 T의 자질융합 (feature percolation)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 (29) a. Arriva Gianni  
       has arrive Gianni  
       'Gianni has arrived'  
       b. Gianni, arriva

또 국어의 화제/초점은 주어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30) 철수는 건강하다

그러나 다음 중주어 구조에서처럼 화제/초점은 주어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 (31) 철수는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다

(31)에서 '건강한 사람'은 '아버지'이지 '철수'가 아니다. 따라서 (30), (31)에서 화제/초점인 '철수'는 [Spec,TP]위치가 아니라 (27)의 [Spec,TopP]위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둘째, (27)에 제안된 '허사 there'의 병합은 Boeckx (2008)의 3차원병합에 의해  $\omega$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phi$ -관계이다. 즉 'there'가 TopP의 지정어 위치에 병합되는 것은 TP이하의  $\alpha$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병합과는 다른 차원이므로 (25)의 예에서처럼 국부성 제약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또 동일 핵의 1개 영역내투사가 아니기 때문에 표제달기 문제도 해결된다. (6)에서 *there*이  $u$ [person]의 자질을 가진 [D]핵이고 이것이 직접 [Spec, T]에 병합되고 있는데 Kim & Lee (2008)은 (5)의 규정에 의해 *there*가 어휘항목으로 핵이 되어 표제가 될 수 있으므로 *there*와 병합된 전체 통사체가 DP로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3차원병합은 'there'가 병합되는 기능범주를 TopP로 보고 있고 이 구는 VP의 투사 체와는 다른 차원으로 병합되기 때문에 표제달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로 (27)에서 '허사there'의 병합부분만 나타내면 (26)을 응용하여 다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2) TopP(there)  
       + $\phi$   
       |  
       - $\phi$   
       H<sup>0</sup> ] ... V

즉, 화제성을 가진 '허사there'는 다른 영역에서 선택되어 3차원으로 H<sup>0</sup>(여기서는 T)와 병

합되는 것이다<sup>14</sup>).

뿐만 아니라 ‘there’을 화제구로 보면 ‘there구조’의 정보구조와 술어의 유형구분도 잘 설명할 수 있다. Milsark (1977)에 제시되었듯이 허사주어구조에서 연계동사 (copular verbs) 뒤에 오는 명사구는 “한정효과 (definiteness effect)”를 준수해야 한다.

- (33) There is (are) \*every/\*most/\*the/some/many/three asteroid(s) near Jupiter. (Basilico 1997: 280)

위 예에서 보듯이 연계동사 뒤에 오는 명사구는 약 한정사 (weak determiners)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there구조’는 다음과 같은 정보구조를 가지게 된다.

- |                   |                           |
|-------------------|---------------------------|
| (34) <u>there</u> | <u>copular verb NP(s)</u> |
| 구정보               | 신정보                       |
| 화제 (topic)        | 평언 (comment)              |

그리고 다음과 같이 (35)와 (36)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개체층위 (individual level) 술어가 올 수 없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 (35) a. \*There are meteors heavy  
 b. \*There are galaxies gigantic  
 c. \*There are comets bright
- (36) a. There are comets visible  
 b. There are shooting stars in the sky  
 c. There are asteroids near Jupiter (Basilico 1997: 280)

(35)의 술어들은 다소 영구성을 의미하는 개체층위술어들로서 약간 순간적인 의미를 지닌

14) 이러한 화제/초점의 3차원병합은 (29)와 같은 이태리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국어 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i) 철수가 공부는 잘 하지만, 운동은 못해

(i)에서 공부, 운동은 동사의 보충어위치를 차지하는 목적어지만 화용적으로 대조초점 (contrastive focus)의 의미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국어의 화제/초점을 영어와 같이 2차원적인 V/vP-TP-CP 투사로 해결하면 국부성조건에 저해가 되지만 3차원병합을 적용하면 대격자질은  $\alpha$ 영역에서 초점자질은  $\omega$ 영역에서 선택하여 3차원으로 병합하면 된다고 본다.

(36)의 장면층위 (stage level)술어들과 대조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차이는 바로 앞에서 살펴본 한정성효과와 관련이 있는데 (35)의 개체층위술어는 그 속성이 이미 정해져 있어 시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정보가 될 수 없어 (34)의 구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최소주의의 경제성원리에 입각하여 'there구조'를 분석하려는 많은 시도는 국부성 제약 등, 이동에 따른 부담과 표제달기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Basilico (1997)의 제안처럼 'there'가 [+specific]의 자질을 가진 화제라면 이를 확대해석하여, 'there'가 구정보의 의미를 가진 화제가 되어 신정보의 의미를 가진 명사구 제휴어를 이끈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난다. 본고에서는 Miyagawa (2007, 2010)에서 제시된 화제/초점구의 구조적 위치와 Boeckx (2008)에서 제시된 3차원병합을 응용하여 'there'는 (32)와 같은 3차원병합을 통해 구조에 들어오며 TP와 병합하여 (27)의 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은 병합과 이동에 따른 국부성문제를 해결하며 제휴어 명사구의 한정성효과도 설명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Basilico, D. (1997). The topic is 'There'. *Studia Linguistica* 51(3), 278-316.
- Bošković, Ž. (2002). A-Movement and the EPP, *Syntax* 5, 167-218.
- Brody, M. (2002). On the status of representations and derivations. In S. D. Epstein and T. D. Seely (Eds.),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pp. 19-41). Oxford: Blackwell.
- Carlson, G.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diss., U. of Mass., Amherst.
- Castillo, J. C., J. Druary & K. Grohmann. (1999). The status of the Merge over Move prefere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Ceccehntto, C. and C. Donati. (2007). On labeling: principle C and head movement. *Stil Studies in Linguistics* 1, 16-37, Università Degli Studi Di Siena.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6). *Barriers*.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Cambridge, Mass.: MITWPL.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pp.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pp.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2005). On phases. ms. MIT.
- Collins C. (2002). Eliminating labels. In S. D. Epstein and T. D. Seely (Ed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pp. 42-64).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ing.
- Diesing, M. (1992). *Indefinites.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20*. Cambridge, Mass.: MIT Press.
- Epstein, S. D. & Seely, T. D. (1999). SPEC-ifying the GF "subject": Eliminating A-chains and the EPP within a derivational model. ms., University of Michigan and Eastern Michigan State University.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 U. of Mass., Amherst. Published in 1989 by Garland, NY.
- Kim, D. S. and Lee, J. C. (2004). *There*-argument association in terms of Agree. *Studies in Modern Grammars* 38, 27-64.
- Kim, D. and Lee, J. (2008). On labeling *there*. *Studies in Modern Grammar* 52, 23-38.
- Kim, H. K. (2004). Filling the Spec position and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Studies in Modern Grammar* 35, 43-62.
- Kim, Y-S. (2010). A new challenge to the nature of human languages: The strongest Minimalist Thesis. *Studies in Modern Grammar* 62, 87-109.
- Lasnik, H.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615-33.
- Lasnik, H. (2001). A note on the EPP. *Linguistic Inquiry* 32, 356-362.
- Martin, R. (1999). Case,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minimalism. In S.



-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pp. 1-25). Cambridge, Mass.: MIT Press.
- Milsark, G. (1977). Towards an explanation of certain peculiarities of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Analysis* 3, 1-29.
- Miyagawa, S. (2007). Unifying agreement and agreement-less languages. In *Proceedings of WAFL 2, MITWPl* 52. 47-66.
- Miyagawa, S. (2010). *Why agree? Why move? Unifying agreement-based an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LI Monograph 54. MIT Press,
- Pesetsky, D. and Torrego, E. (2001). T-to-C mov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355-426). Cambridge, Mass.: MIT Press.
- Pesetsky, D. and Torrego, E. (2006). Probes, goals and syntactic categories. *Proceedings of the 7th annual Tokyo Conference on Psycholinguistics*. Keio University.
- Radford, A. (2004).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nhart, T. (2000). *Interface strategies*. LI Monograph 45. Cambridge, Mass.: MIT Press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pp. 281-337). Dordrecht: Kluwer.
- Sabel, J. (2000). Expletives as features. *WCCFL* 19, 411-424.
- Watanabe, A. (2004). The genesis of negative concord: Syntax and morphology of negative doubling. *Linguistic Inquiry* 35, 559-612.

**김학연**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 1리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053) 850-3128  
 kimhy@cu.ac.kr

Received on 21 July,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20 August, 2011

Accepted on 20 August, 2011